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 송원희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 국내 선교 지역 | 선교 방송 스케줄 |
|----------------|-------------------------------|
| ▶ 방송 선교지원 |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 ▶ 아프리카 우물과기 |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 ▶ 샤론센터 | |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 ▶ 한국선원 선교회 | |
| ▶ 이완구 장학사역 | |

| 해외 선교 지역 | 기독교 기관 선교 |
|--------------------------|---------------------|
| ▶ 동아시아 50개 교회 | ▶ 미주 남침례회 SBC |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 쿠바(정경석)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 니카라과(혜밀탄) | ▶ 한인국내선교부 |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한인해외선교부 |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 잠비아(Emile)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밀알선교단 |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 |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7월 25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분당
-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분당
-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분당
-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툴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베툴레헴
11:00AM / 나사렛
-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분당
-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툴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 6:00AM / 분당
-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전우일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전우일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4장 “전능왕 오셔서”

3부: “다와서 찬양해”

“생명 주께 있네”

“내 주를 가까이”

“주께 가까이”

기도

1부: 명숙헨리 집사

3부: 백영기 집사

봉헌찬양

1,3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공동체 소식

* 성경 본문

골로새서 3:15-17

제목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 선포

전우일 목사

* 응답 찬송

1,3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1)

7. **학생/영어청년부 수련회: 8/24(화)-26(목)**. 장소: Black Diamond Camp. 회비: \$110(8/8 까지) \$140(8/8 이후), 2nd Child부터 학생당 \$99(8/8까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를 위한 학부모 모임: 8/1(주일) 3부 예배후. 장소: 안디옥

8. **자원봉사자 모집:**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바랍니다.

(1)유치부 유년부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2)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때

9.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수수료 헌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헌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1. **C-Drive 사역:**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기부물품이나 항목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코로나 방역 지침

-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세요.
- 2) 성인예배는 입장 절차를 생략합니다(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지 않음).
- 3) 다음세대예배(유치,유년,Youth)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 4) COVID-19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목회자 동정:** 정주영 목사 휴가(7/19-7/31)

◇ **중보:** Tiffany Walker,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eth Adkins, Mike Mooer, Eric Mose, Tom Bayliss, 정경선, 신의범, 최재돈,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Mission Wednesdays(선교 수요일): 7/28부터 5주 동안, 우리교회 선교사님과 강사들을 통해 선교 사역을 나누고, 함께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28(정경석 선교사), 8/4(권민정 선교사), 8/11(Joshua/이성숙 선교사), 8/18(강승수 목사), 8/25(정주영 목사)
-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세워질 담임목사님과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 진행에 관하여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빙광고: 6/8(화)~7/31(토), 청빙광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VIP 2021년 2기 : 매주일 오후 1시. 본당 2층 N-209호
4주 과정의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는 새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일꾼 세미나: 7/31(토) 오전 7:30-9:00.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임명집사, 청지기/돌봄지기, 교사 및 제직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리교회 담임목사,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 김경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주일(8/1) 1부와 3부 예배 설교하십니다.
- 생명의 삶 8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남궁곤 목사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도 철옥핏셔 집사
제목 [Mission Wed. 1]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성경본문 디모데후서 2:1-3
말씀선포 정경석 선교사

봉사위원 Volunteer

| | 이 번 주 | 다 음 주 |
|---------------|--|-------------------------------------|
| 기도 Prayer | 1부 명숙헨리 집사 3부 백영기 집사 수요 철옥핏셔 집사 | 1부 채길호 집사 3부 송인상 집사 수요 박수정 집사 |
| 주차장 |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배위원 Usher |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일오찬 봉사 |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 |

새벽 예배 설교

| 날짜 | 본문 | 설교자 | 날짜 | 본문 | 설교자 |
|---------|-------------|--------|---------|-------------|--------|
| 7/26(월) | 시편 18:1-19 | 안재훈 목사 | 7/27(화) | 시편 18:20-31 | 남궁곤 목사 |
| 7/28(수) | 시편 18:32-50 | 전우일 목사 | 7/29(목) | 시편 19:1-14 | 안재훈 목사 |
| 7/30(금) | 시편 20:1-9 | 전우일 목사 | 7/31(토) | 특별새벽예배 | 김경도 목사 |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주를 갈망하며**

□ **본문: 시편 63:1-11**

갈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강하게 원한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갈망이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인류문명의 많은 영역들이 인간의 갈망으로부터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갈망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큼 아름다운 갈망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본문 1절 초반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중에 하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광야에 숨어 지낼 때고,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된 후 자신의 아들 암살범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장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암살범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왕자 중에 하나였고요.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것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한참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도 망신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힘들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때도 그는 변함 없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다윗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릴때부터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하면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지켜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던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때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교회에 올때 기쁨과 찬양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마지 못해서 힘들게 힘들게 교회를 오고 계십니까? 나는 가기 싫는데, 그냥 가족들 따라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는듯 마는듯하고, 설교시간에 오늘은 뭐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와 예배들이 그저 나와는 상관 없는 무의미한 일들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보신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교회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스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예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면 그들이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에 만족한채 열심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미국교회들이 너무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살기 좋다고 손꼽히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고요. 이 세계에는 절대적인 빈곤, 1달러 이하의 돈으로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상대적인 어려움이지, 절대적인 어려움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살만한 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런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거죠. 요한계시록 3장 16~1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영적인 위기감과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세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 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여 힘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읊조리며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날개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6-8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죄가운데 파멸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쁨때나 슬픔때나, 좋을때나 싫을때나 늘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셔도 좋고, 다윗처럼 시나 찬양으로 찾으셔도 좋고, 매일 매일 묵상노트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셔도 좋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구했던 장소는 성소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시편의 저자인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주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갈급한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질문]

1.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수 있나요?